광주 북구, '골목경제 회복 지원' 호남 유일 선정

국비 3억8천만원 확보…'매일이길' 사업 추진

골목경제네트워크 활성화·지역특화 상권 조성

광주 북구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2022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돼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2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채택돼 국비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북구는 시·구비 1억9천만원을 각각 추가 투입해 총사업비 7억6천만원 규모로 '매곡의 일상과 이상이 담긴 길, 매일이길'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엔 매곡동 골목형상점가상인회 소속 95개 점포가 참여한다.

주요 사업 분야는 ▲골목경제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골목길 조성 ▲성과 분석·사후 관리다.

골목경제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북구는 상생상가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상점가 출입구에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골목경제 축제 및 상점가 공동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골목을 누빌 수 있도록 매곡동 일원 도로도 재포장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도 이뤄진다.

북구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골목상권·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북구는 오는 9월 상인회와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컨설팅에 참여한다.

10월에는 '매일이길 TF'를 구성한다. 이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단계 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내 매곡동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앞으로도 자영업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경제 회복과 민간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안재영 기자

침수·붕괴…중부지방 집중호우 8명 사망·6명 실종

수도권 이재민 230세대 391명

인근 학교·체육관 등에 머물러

서울에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도로가 많은 비로 인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사망 8명(서울 5명·경기 3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부상 9명(경기) 등으로 집계됐다. 오전 6시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7분께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여성과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작구에서는 쏟아진 비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

동작구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도로 사면 토사 매몰로 다른 1명이 사망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이날 오전 4시 27분께 산사태 토사 매몰로 1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맨홀 하수구 등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230세대 391명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밖에 서울 동작구와 경기 광명 등지에서도 269세대 399명이 주민센터와 학교, 복지관으로 일시 대피했다.

선로 침수 등 수도권의 공공시설도 피해가 컸다. 서울 7건, 인천 1건 등 모두 8건의 선로 침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하철 9호선은 전날 밤부터 부분 통제중이다. 이날 오전 1시께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에서 토사가 유실돼 응급복구하고 있으며 1개 차로를 개방 중이다. 이밖에 옹벽 붕괴 1건, 제방 유실 2건, 사면 유실 5건 등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1곳(용인-서울), 일반도로 48곳, 지하차도 3곳, 둔치주차장 26곳, 하천변 45곳 등도 통제됐다.

국립공원은 전날부터 북한산 등 5개 공원 156개 탐방로가 통제됐으며 여객선 8개 항로 11척 운항도 중단된 상태다.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765건 가운데 650건(85.0%)의 복구가 완료됐다.

소방당국은 경기 등 중부지방 하천에서 88명의 구조를 완료했으며 가로수 등 도로 장애물 313건을 제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 접수

광주시는 9일 "'2022 대한민국 인재상'의 광주지역 대학생·청년일반인 부문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 3개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시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우수 인재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해 국무총리상(1명)은 상금 300만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99명은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시는 지역 심사를 거쳐 총 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2명이 선발된다. 고등학생은 시교육청을 통해 지역 심사가 진행된다.

지원자는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포털(http://injaeaward.saramin.co.kr)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추천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광주지역 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시 인재육성과(062-613-1642)로 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면역저하자 '이부실드' 무상 투약 시작

道, 투약 의료기관 20곳서 항체주사제 상담 후 진행

전남도는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여 시 코로나19 감염 93%, 중증·사망 50% 감소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해남종합병원 등 20곳을 투약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대상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일차)면역 결핍증 환자 등이다. 다만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 몸무게 40㎏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다.

투약은 대상자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한 후 최종 결정되며 의료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이뤄진다.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된다.

이부실드는 근육주사로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면 수 시간 내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 간 지속된다.

코로나19 백신이 14일 이내 중화항체가 형성되고 세포 면역까지 유도하는 것과 달리, 이부실드는 체내에 충분한 항체 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주입해 감염 예방 효과를 낸다. /김재정 기자

道,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발굴

총 5천만원 규모 기금 2차 사업 공모…16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권익 증진을 위한 2022년 양성평등기금 2차 사업을 공모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공모할 분야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지원 ▲젠더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 경제 참여 확대 등 4개 유형이다.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둔 일반단체,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다. 전남도는 2차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조례를 개정, 일반단체를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일반단체는 신청 시 정관·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2개 이상 시·군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사업 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모집된 사업의 기금 사용 목적, 지원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한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전화(061-286-59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 4명 지원

전남개발공사는 9일 "제8대 사장 공개모집 결과, 최종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장 응모자는 광역의원 출신 1명, 준정부기관 출신 1명, 공기업 출신 1명, 기타 1명이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1일 서류심사를 실시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뒤 조만간 면접을 거쳐 2배수의 후보자를 전남지사에게 추천한다.

이후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전남도의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임명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간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